2025-12-08

HI FX Brief

점점 더 설명하기 힘든 원 약세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원-엔간 동조화 약화

- 미 연준의 12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. 달러화 지수는 10월말 이후 처음으로 98대에 진입함
- 유로화는 2주 연속 강세를 기록함. 미국 9월 PCE 물가지표 안도감에 따른 달러 약세, 유로존 성장세 지속(3분기 GDP 성장률 전기비 0.3%) 등이 유로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
- 엔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기록함. 12월 일본은행 금리인상 경계감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등으로 달러-엔 환율이 한때 154엔대까지 하락하는 등 엔 강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
- 역외 위안화는 보합세를 기록함.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강세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위안화 가치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
- 호주달러는 2주 연속 큰 폭 상승함, 주요국 통화 강세 흐름과 함께 호주 중앙은행이 내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전망 등이 호주달러 강세를 부추김
- 달러-원 환율은 전주대비 소폭 상승함. 달러 약세 및 엔 강세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 중 원화 가치만 하락함. 시장내 팽배해 있는 원화 약세 심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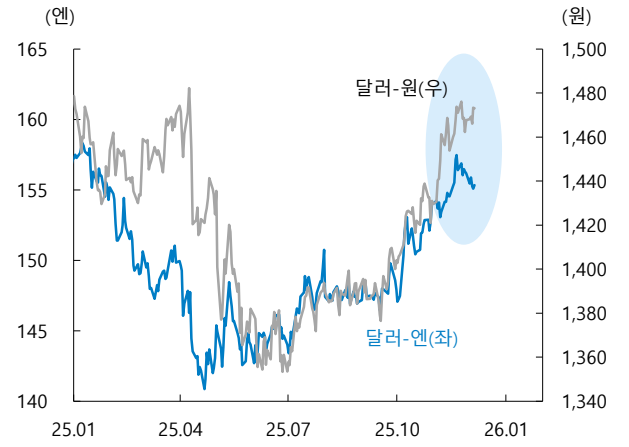
	12월 5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9.0	-0.47	-8.75
유로-달러	1.164	0.38	12.44
달러-엔	155.3	-0.54	-1.19
역외 달러-위안	7.07	-0.02	-3.66
호주달러-달러	0.66	1.37	7.30
달러-원	1,473.3	0.44	0.07

달러-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

금주: FOMC 회의 결정 내용, 특히 미 연준 갈등 여부 가시화 주목

-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여부와 함께 외환시장이 주목할 내용은 미 연준 분열 여부임. 금리 결정과 관련된 표결 결과 및 점도표 등이 미 연준내 갈등 양상을 보여줄 것임. 만약 미 연준내 갈등이 현실화된다면 달러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달러-원 환율은 12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달러화 흐름에 큰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임. 원-엔간 동조화 현상이 복원 혹은 더욱 약화될지도 주목해야 할 변수임.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40~1,49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원-엔간 동조화 현상이 약화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와 미 10년 국채금리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: 달러 약세 VS 국채 금리 상승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